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주선전실에 관한 연구*

- 운영구조와 지도체계를 중심으로 -

김상범**

1. 머리말
2. 역사 제도적 배경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와 지도체계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기 북한 패퇴 후 체제유지를 위해 선전선동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민주선전실 운영 및 지도체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 이 글은 김상범, 「한국전쟁기 조선로동당 정치조직사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12-153쪽을 전면 수정·보충한 것임을 밝힌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북한은 1950년 9월 미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북중 국경까지 패퇴를 거듭하였다.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북한 대부분 지역의 점령, 이어진 중요 농업 및 산업 시설 파괴, 대량 인명 피해와 농업 포기 및 농업생산물과 농업기구들을 헐값에 팔고 지역을 이탈하는 행위¹⁾, 남한으로의 피난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당시 전체인구 약 80%가 농업에 종사했던 신생 사회주의 국가 북한²⁾에 계는 체제 기반의 붕괴 및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후퇴 시기 인민들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관료들의 규율 해이 현상도 심각했다. 패퇴하는 과정에서 당증을 찢거나 소각·매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심지어는 유엔군에 투항하면서 당증을 내주거나 인민군대 내 도피자까지 발생하였다.³⁾ 후퇴 직후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인 당원등록과 당 역량 배치사업 과정에서 전체 당원 수 60여만 명 중 심사대상 당원이 45여만 명, 이 가운데 책벌의 대상이 30여만 명이였다.⁴⁾ 패퇴 시기 체제의 정치, 경제적 기반 파괴 및 당과 정부 내 규율 해이 현상은 북한으로서는 분명한 ‘위기’였다.

동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38선 이북 지역을 회복한 뒤 북한은 빠른 시간 내 붕괴된 정치, 경제적 기반을 복구하고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였을까? 정책은 인민들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정책은 인민들이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신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3년 춘기파중 준비 진행에 대한 내각결정 집행정형과 그와 관련한 당단체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조직위원회 제127차 회의 결정서, 1953년 2월 24일)」, 『1953년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 66쪽.

2) 김일성, 「당조직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99쪽.

3)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김석형 구술 자료집 -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오!』, 서울: 선인, 2001, 332-338쪽.

4) 방인후,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146-147쪽.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동요와 이탈을 방지해야 했다. 동시에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목표를 그들과 공유하며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인민들에 의한 동의’의 과정이 필요했다.

북한은 후퇴 후 재 수복한 지역에 대해 당에서 458명에 달하는 선전선동원들을 각 도에 파견⁵⁾하여 ‘리’의 선전망을 개편, 확립하는 차원에서 민주선전실을 정비하는데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⁶⁾ 또한 김일성은 1951년 1월 “당의 우수한 력량을 농촌에로!”라는 구호를 통해 중앙당의 능력 있는 많은 간부들을 농촌으로 파견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1만 5천개의 민주선전실을 설치 및 복구⁷⁾하도록 긴급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민주선전실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하였으며, 이곳에 부여된 임무도 재설정하였다. 선전선동과 정치교양사업 강화를 통한 인민 체제 기반 복원과 사회 전체를 전쟁을 위해 일심 단결된 투사로 만들려는 김일성의 의지는 먼저 이북지역 재수복 이후 민주선전실 운영구조와 지도체계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으로 전쟁 상황 역전과 자체의 선전선동사업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서 철저한 자기 중심의 새로운 체제 기초를 쌓고 싶어 했다.

현재까지 북한연구 학계에서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전쟁을 ‘과정’과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와 ‘전투’로 이해⁸⁾함으로써 전쟁수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강연 선전사업 강화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4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0월 1일)」, 『1947.7-1951.12 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정집』, 316쪽.

6) “군중정치선동사업 강화하여 인민을 전선강화에 조직 동원 - 평북 정주군당단체,” 『로동신문』, 1951년 1월 19일. 그러나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한 날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다.

7) 김진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직진행된 농업협동화준비사업이 전후 농업협동화운동 발전에서 가지는 역사적의의」, 『력사과학』,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16쪽.

8)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48쪽.

행의 정당성을 만을 부각시킨 채, 국가와 군대,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등 전시체제 국가의 지배방식과 사회구조, 행위자들의 행동 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강했다.

둘째, 자료 부족은 민주선전실의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을 연출시켰다. 특히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해서 노획되어 국내에 존재하는 로동신문은 적지 않은 부분이 판독 불량 상태이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로동신문을 공수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민주선전실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셋째, 민주선전실이 현재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시기를 연구한 일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가 부족했다. 이들은 민주선전실을 선전선동 관련 ‘기억의 정치공간’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체계, 사업 방법 및 사례, 특히 당, 정부 그리고 인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⁹⁾

넷째, 일부 북한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¹⁰⁾으로 인해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여

9)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97-139쪽; 김중수, 「북한 주민의 사상교양: 사상교양공간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1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169-210쪽; 김영희,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선전선동사업」,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6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150-172쪽; 탁민정, 「북한 국가 건설기 농촌 민주선전실의 조직과 활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정명훈, 「전시의 극장, 선동과 공감의 매개체: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159-195쪽.

10) 김일성조차 당시 일부 민주선전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

연구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연구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본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 초기 민주선전실이 최초로 설치되었던 1946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를 연구대상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전과 후 민주선전실의 조직, 운영, 활동 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전쟁기 인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정부는 인민들의 이러한 인식변화를 전쟁승리를 위한 교육과 동원에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문헌은 로동신문이다. 북한 문헌은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소급 해석하는 소위 ‘역사의 현재화’작업으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재해석되고, 재 가공된 자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동신문은 당대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며 현재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¹¹⁾ 여타 문헌들은 민주선전실 관련 결정 및 규정 등 행정적인 내용들만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로동신문은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 지도 체계, 활동과 인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역사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선전실 운영정형을 보면 민주선전실을 꾸려 놓은데 그치고 그것을 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저 회의나 하고 강연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민주선전실에 농민들이 흥미있게 볼 만한 책도 얼마 없습니다. 민주선전실에서 회의나 하고 강연만 하여서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민주선전실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모이도록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위한 중요한 담보」, 『김일성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27쪽.

11)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24-26쪽.

2. 역사 제도적 배경

가.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의미

선전선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과 인민대중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형태이다. 사회주의에서 선전(propaganda)은 기존 관념에 새로운 관념을 결합한다는 뜻으로 일정한 사상, 관점, 정책 등을 대중들에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설해 줌으로써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 선동(agitation)은 선전을 통해 형성된 관념을 인간의 행위와 연관시킨다는 뜻으로 대중의 정서,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노선, 목적 등을 잘 수행하도록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 관철을 위해 행동을 유도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¹²⁾

선전은 선동에 비해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론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므로 주로 간부나 당원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¹³⁾ 선동은 선전을 통해 밝혀진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교양 및 호소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해석,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⁴⁾ 사회주의에서의 선전과 선동은 당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교육하고, 당이 대중들을 사회주의로 교양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임으로써 당과 인민이 하나의 이념과 목표 아래 정치, 경제적으로 단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전과 선동은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문화교양 수준을 향상시켜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로 동원하기 위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¹⁵⁾ 사회주의에서는 선전과 선동을

12) 편집부 엮음, 『선전선동론』, 서울: 지양사, 1989, 20-21쪽.

13) 조선로동당출판사 저,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0-21쪽.

14) 위의 책, 20-21쪽.

15) Wolfgang Deckers,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in Mao Zedong:"

결합한 아지프로(agitprop)¹⁶⁾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당의 정치 노선 관철을 위해 선전선동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전선동은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이요, 국민들은 당과 정부가 제공하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정치의식 및 사회문화적 수준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유해 가는 상호작용인 것이다. 이것은 선전선동이 당과 인민이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이요,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며, 당과 인민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선동은 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낸 공동 결과물이었다.¹⁷⁾

나. 민주선전실의 기원 : 한국전쟁 이전 조직 및 활동

민주선전실은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내 첫 선거였던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끝난 직후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명 후 존속을 지시한데서 시작되었다.¹⁸⁾ 김일성은 당시 공장 및 기업소들에는 노동자들의 교양을 담당하는 노동자구락부가 있으므로, 낙후된 농촌지역 인민들의 교양을 위해 민주선전실을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인민들의 정치사상

Origins and Development of a Revolutionary Strategy," (Ph.D. dis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6), p.276.

16) James S. Olson,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Propaganda*(Westport and London: Greenwood Press, 2004), p.5.

17) 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Politics and Propaganda: Weapons of Mass Seduction*(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p.4.

18) 최창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시기 민주선전실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력사과학』,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6쪽.

및 사회문화적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높은 노인 인구비율과 문맹률로 인해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척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일제가 남긴 물질적, 제도적, 사상적, 문화적 유산을 청산의 성공 여부가 새로이 수립될 국가의 정통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⁹⁾ 김일성은 민주선전실을 통해 해방 후 낙후된 북한 농촌 지역의 정치적 계몽, 경제적 여건의 향상을 위한 대중동원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초기 민주선전실은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과 애국주의 위주의 ‘인민계몽사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8일 결정 제107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속시킬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²⁰⁾ 동월 11월 28일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협소한 선동사업 형식으로부터 근로대중속에서 광범한 선전사업 형식으로 넘어갈’데 대한 결정과 ‘선거선전사업에서 동원되었던 선전원들을 튼튼히 조직하여 재교양시키며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확보’할 것에 대한 ‘당박사’ 허가이의 지적²¹⁾에 따라 각급 당 단체들은 민주선전실 확보사업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당 선전선동부는 농촌의 경우 민주선전실을 가능한 한 20여 호 이상 되는 모든 부락과 1개 리에 2곳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²²⁾ 민주선전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농촌 지주 소유의 큰 건물,

19) 김재용,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90쪽.

20) 최창명, 위의 글, 6쪽.

21)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21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선전원수책, No.9, 1948.12, 선전선동부. NARA, RG 242, SA 20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 문서.

22) 위의 글, 30쪽.

기존의 선거선전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직접 자금과 자재를 동원해 새로이 건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947년 6월부터 한 해 동안에 산간 오지마을까지 포함, 전국적으로 4,546개의 민주선전실이 새로 꾸려졌으며, 1948년 4월 당시 7,780개²³⁾, 1948년 말에 이르러서는 16,662개로 폭증하였다.²⁴⁾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 정권 수립기 여타 사회주의 신생국가들보다 선전선동을 통한 계몽사업에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투입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⁵⁾

초기 북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²⁶⁾은 각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설치 및 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다.²⁷⁾ 당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장은 무급직이었으며, 대체로 토지개혁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할 받은 열성농민들 중 지역 인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즉, 민주선전실장은 농촌지역 명예직이었다. ‘당원’은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그 외 각 활동 책임자들이

23) 김일성, 「북조선 정치정세」,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73쪽.

24) 최창명, 위의 글, 7쪽.

25) Charles K.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166.

26)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 운영, 사업체계를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찾기 어렵다. 력사과학, 북한관계 사료집, 로동신문, 선전원 등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체계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에서도 운영 지침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북한이 패퇴 후 재 수복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이 복구, 재단장 되면서 로동신문에서는 구체적인 민주선전실장의 임명 및 사업 절차, 인적 구성 및 활동, 당과 정부의 지도체계, 민주선전실장 교육 관련 세미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선전실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 인민들 또한 면밀히 이해하고 협조함으로써 전쟁수행을 위한 교육과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07호」, 『북한관계 사료집(1945-1947)』, 제5권, 과천: 국가편찬위원회, 1987, 66쪽.

되기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었다. 또한 1개의 민주선전실에 배치된 5~7명의 선전원들²⁸⁾도 모두 무급이었다.

인민계몽사업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장식도 중요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 벽보, 선전원 체제도, 영농계획표, 문명퇴치 정형표 등 선전선동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선전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주선전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선전실장을 비롯해 선전원 책임자, 벽보 책임자, 예술소조 책임자들을 포함한 3-9명의 열성 농민들로 구성되었다.²⁹⁾ 당 문화선전성은 이들 책임자들이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외 다른 임무를 겸임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³⁰⁾

각급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등의 선전원, 문화인들이 협조하여 민주선전실 내 독보회, 좌담회, 벽보사업, 도서 열람, 씨클 활동 등 정치교양과 선전사업을 담당했다. 독보회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하되, 책임자가 신문기사 중 국내외 정세, 중앙정부 및 각급 인민위원회의 시책 등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 선택하여 10-15분 동안 기사 내용을 전달하고 10분간의 집단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³¹⁾ 좌담회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농업기술전습 경험 및 모범 노동자들

28) ① 민주선전실 책임자 1명, ② 독보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③ 표어, 만화, 벽신문, 속보판, 그래프판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문화, 예술, 체육 등이 동호회를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④ 도서 활용과 학습을 지도하는 선전원 1명.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30쪽.

29) 최창명, 위의 글, 7쪽.

30)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57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Item #177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NARA, RG 242, SA 20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그러나 문화선전성의 이러한 권고는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 후 재수복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31) 위의 글, 62쪽.

의 증산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³²⁾ 1947년 말-1948년 초에 4,370회, 1948년 초-1949년 상반기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15,416회가 개최되었다.³³⁾

이러한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 형식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졌던 것은 소련의 정치사상과 선진문화 관련 부분이었다. 1945년 11월 북한에 설립된 소비에트 대외문화교류총협회의 지부인 조쏘문화협회와 농촌 지역 말단 행정구역까지 설치된 조쏘반을 주축으로 민주선전실 내 소련 관련 교육 내용을 채울 수 있었다.³⁴⁾

그러나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씨클 활동 관련 연예오락사업이었다.³⁵⁾ 이것은 초기 운영에 있어서 나이가 다른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 모이게 하여, 민주선전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가장 효율적이며, 쉬운 선전선동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민주선전실은 무지하고 아무생각 없는 젊은 여성들이 노래나 부르러 다니는 곳'이며, 민주선전실을 자주 출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게으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³⁶⁾

설상가상으로 북한 농촌지역 당과 인민위원회 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들의 부족으로 인한 선전선동과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지도체계 문제는 일부 민주선전실들을 아예 이용하지

32) 앞의 글, 63쪽.

33) 최창명, 위의 글, 9쪽.

34)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과 조쏘문화협회는 별개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 민주선전실장은 조쏘문화협회 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된다. 한국전쟁 이전 조쏘문화협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127-136쪽을 참고.

35)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70쪽.

36)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한다 - 구체적이며 진공적인 군중 정치사업 전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3일.

않거나, 동네 사랑방으로 이용되거나, 조이삭, 강냉이나 말리거나, 심지어는 혼백을 모시는 사당으로 활용되게 방치해 두었던 사례³⁷⁾로 나타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 이전 시기는 농촌지역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만한 능력 있는 인재 부족의 현실로 인해 북한이 당시 인민계몽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전선동사업에 정치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권 수립 초기 이어진 선거, 예를 들어 1947년 2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이어진 각급 단위 인민위원회 선거,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1949년 3월 30일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등 연이은 선거로 인해 정치성이 강한 선전선동 사업은 대부분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당과 정부의 업적을 소개하는 선거 홍보와 투표 격려에 집중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당시 북한에게는 선거와 투표라는 정치행위 그 자체가 국가의 조직력과 선전선동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결국 정권의 정치적 통제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³⁸⁾ 다시 말해, 한국전쟁 이전 북한은 선전선동사업을 위한 민주선전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거를 통해 선전선동의 사업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왔던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방식은 전쟁 중 북한이 패퇴와 재수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며 인민들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37)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26-27, 32쪽.

38) 북한 정권 수립기 북한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한 선거체제의 특수성과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박수현, 「북한 국가건설기 선거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4권 제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143-146쪽.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세의 운영구조와 지도체계

가. 유급 민주선전실장제 실시 : 중앙 당의 직접 지도 및 관리

북한은 재 수복 직후인 1951년 1월 14일 공화국 수상 김일성 명의의 내각 결정 제190호‘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물산을 등록하여 이를 처분할 데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체제 이탈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였다. 이어 1월 21일 당 중앙 정치위원회 제73차 회의에서 무상 치료와 세금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하여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대책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 전제민과 농민들의 무상 치료와 세금 면제,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는 춘경기 및 제초기에 농민들의 국가동원을 금지시켰다.³⁹⁾

같은 날 열린 제74차 회의에서는‘인민들 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⁴⁰⁾, 농촌지역 경제 기반 복원과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통해 전쟁 수행을 위한 선전선동과 정치교양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압도적인 미 공군력으로 인해 국가기반 도시와 산업시설이 대규모로 파괴된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농촌지역은 전쟁 수행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북한은 1951년 3월 12일 내각 결정 제224호를 채택하여 농촌 지역 주민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민주선전실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내각은 산간벽지와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하여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대책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73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월 21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21-24쪽.

4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279쪽.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표기는 원문을 인용.

군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는 각 리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민주선전실을 복구 및 정비, 민주선전실이 없던 지역은 새로 신설하고, 그에 우선적으로 문화선전상·내각 간부국장 및 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농촌 지역에 유능한 5,000명의 유급민주선전실장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내각은 민주선전실 운영 경비와 그 외 서적·비품 등의 배치와 관련 재정 지원하는 내용도 발표하였다.⁴¹⁾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전쟁기 대중 정치사상 및 문화 교양사업 분야에서의 결정적인 혁신이었다.⁴²⁾ 선전선동망을 개편하여 기존 비당원,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주로 오락 및 선거활동을 주로 해오던 민주선전실을 체계적인 교육과 동원을 통한 전쟁 승리 및 체제 유지를 위해 당원 및 중앙 당 인사를 파견하고 지도·감독하는 중앙당 직접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 이 조치는 농촌 지역 통치 체제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였으며,⁴³⁾ 전쟁기 민주선전실 운영과 사업체계 관련 가장 큰 변화이기도 했다.

1951년 8월 30일에는 내각 결정 321호로써 농촌 리 민주선전실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⁴⁴⁾ 이것은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새로운 운영구조와 지도체계의 변화, 민주선전실장의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농촌 리 단위 전시 선전선동사업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⁴⁵⁾

41) 「인민속에서 대중적 정치사업 제고를 위한 유급 민주선전실장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서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224호」, 『북한관계 사료집(1951-1952)』, 제24권, 과천: 국가편찬위원회, 1996, 34쪽.

42) 장종립,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78쪽.

4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471쪽.

44) “농촌 리 민주선전실에 관한 규정 승인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1년 9월 7일.

45) 김종수, 「북한 주민의 사상교양: 사상교양공간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1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181쪽.

전쟁 이전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며, 당원 자격도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비록 전쟁 이전 시기 북한은 민주선전실장에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외 다른 임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농민에게 정치사상 및 문화교육사업을 담당하는 민주선전실장의 임무까지 맡긴다는 것은 농업도 사업도 모두 안 되는 말 그대로 무리한 발상이었다.

전쟁기에는 유급직 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철저한 당성을 지닌 당원으로 구성되었다.⁴⁶⁾ 전쟁이 소강상태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북한은 남한으로 파견되었던 스파이들 중에서 당성과 사상성이 좋은 이들을 민주선전실장으로 부임시키기도 하였다.⁴⁷⁾ 민주선전실장은 고급중학교 이상의 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실력을 소유한 자 또는 해방 후 각종 정치학교를 졸업한 자들 중에서 인민들의 신망과 권위가 있는 자들로 임명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의 급료 및 강습비 기타 운영 관련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은 인민학교 1급 교원과 동일한 국가적 우대를 받았으며, 당시 군당 위원장이나 당 간부보다 많은 12원을 받았다.⁴⁸⁾ 이는 전쟁기 민주선전실장의 사회적 지위와 책무를 상징적 보여주며, 민주선전실의 운영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급 민주선전실장 각 도별 배정 현황을 보면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평야지대로 농업 수확량이 많은 평남과 황해도 지역에 각각 850명을 파견함으로써 산간지대인 자강도와 함북도와는 두 배 이상 혹은 두 배 가까운 인원이 배치되었다. 이것은 전쟁기 이 지

4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 275쪽.

47)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상)』, 서울: 현장문학사, 1990), 191-220쪽. “안주군 평릉리 민주선전실장” 편 참고.

48) 위의 책, 203쪽.

역의 인적, 물적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에 대한 복구를 통한 지역 질서의 정립이 북한 체제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복구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표 3-1〉 유급 민주선전실장 각 도별 배정 현황

지 역	배정 수
평남도	850
평북도	800
자강도	400
함남도	800
함북도	500
황해도	850
강원도	800
합계	5,000

출처 : 「인민속에서 대중적 정치사업 제고를 위한 유급 민주선전실장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서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224호」, 『북한관계 사료집(1951-1952)』, 제 24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34쪽.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민주선전실은 1950년대 하반기에 3,794개에서 1951년 2/4분기에는 12,833개⁴⁹⁾, 1952년 8월 현재 15,000여개⁵⁰⁾로 늘어났다. 1948년 말에 16,662개⁵¹⁾에 달했던 민주선전실이

4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 290쪽.

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 결정서, 1952년 8월 3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84쪽.

51) 한국전쟁 개전 전까지의 정확한 민주선전실의 수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각 농촌 지역에 민주선전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수는 1948년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은 “북반부 인민들의 건설투쟁: 함남도 내 각 공장 기업소에서 기본건설 공사 활발, 북반부 농민들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을 대대적으로 건설”, 『로동신문』, 1950년 3월 29일; “민주선전실 신설: 평양 연초의 기념구설”, 『투사신문』, 1950년 6월 13일 참고. ‘□’ 표시는 판독 불가로 인한 본 연구자의 임의적인 표기임.

1950년 하반기에 3,794개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했던 두 달 동안 선전선동 기반을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당과 정부의 정책으로 1952년 8월에서야 민주선전실의 수가 1948년 수준까지 증가하게 된다.

한국전쟁 전 민주선전실 설치 초기와 비슷한 숫자와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내 많은 민주선전실의 보수, 재설치하였다는 사실은 당이 선전선동의 조직, 임무, 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해 한국전쟁 이전과는 달리 깊게 관여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으며, 선전선동사업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국가적 중요 사업이었음을 의미한다. 체제, 최고지도자, 인민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행동이 선전선동사업이요 북한에게 한국전쟁은 군인들에 의한 전투가 아니라 인민들에 의한 전투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또한 당과 정부, 인민들 간의 정치적 관계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 당과 정부의 지도·감독 이원화

전쟁기 민주선전실은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문화선전성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다.⁵²⁾ 전쟁 이전 시기 각 급 인민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쟁기에는 각 도당 위원회가 민주선전실장의 선발 배치와 설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를 담당했으며,⁵³⁾ 이를 바탕으로 각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민주선전실장을 임명하였다.⁵⁴⁾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

52) 김일성, 「농촌에서 당정치교양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결론(1952년 6월 28일)」,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03쪽.

53)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 - 평남도당부 선전선동부장 리창협,” 『로동신문』, 1951년 9월 18일.

54) “당적 협조를 강화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 황주군 미산리 세포에서,” 『로

장의 선발과 교육은 각급 당 선전선동부가, 행정적 지시와 감독사업은 각급 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가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구성되었다. 전쟁기 당 사업에서 유능한 간부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선전실 사업의 강화를 위한 운영 및 지도체계 변화는 계속됐다. 먼저 도 인민위원회 내에 농촌 지역 민주선전실 실무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도 문화선전부 내 과장 1명, 지도원 2명으로 구성되는 민주선전실 지도과를 신설하고 군 인민위원회에도 민주선전실 지도원 1명을 두어 유능한 민주선전실장의 배치와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⁵⁵⁾ 이어 1951년 12월 24일 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를 열어 당 선전선동 및 군중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목적으로 도 당위원회에 이를 전임하는 선전부위원장제를 신설하였다. 전임 부위원장은 현존한 부위원장들 중에서 배치하였으며, 1952년 1월 중으로 배치할 것을 결정하였다.⁵⁶⁾

연이어 북한은 1951년 12월 5일 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를 열어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를 결정⁵⁷⁾하고 이를 근거로 각 도당은 능력 없는 민주선전실장을 새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 자체 권한도 부여받았다. 북한은 유급 민주선전실장제 신설, 도 인민위원회 내 민주선전지도과 신설, 도 당 선전부위원장제 신설 및 민주선전실장 교체 권한 부여 등 민주선전실에 대한 당과 정부

동신문], 1951년 11월 13일.

5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1949.7-1951.12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28-329쪽.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선전실 지도과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헌을 찾기는 어렵다.

5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도당위원회에 선전부위원장제 설치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24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6쪽.

5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327쪽.

의 지도·감독의 이원화 및 자체 조직 내 민주선전실의 운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 조치들은 당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교육과 동원을 목적으로 민주선전실 사업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민주선전실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북한은 1952년 8월 3일 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에서 ‘농촌에서의 당 정치교양사업 및 군중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유급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2개의 선전실을 담당케 하였으며, 민주선전실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민주선전실에 1명의 무급 부선전실장을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⁸⁾ 이 조치는 전쟁기 능력있는 간부들의 부족 현상과 여전히 많은 민주선전실이 사업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도 연관이 있지만, 1951년 12월 5일 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를 열어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를 결정에 따라 유급 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된 민주선전실들이 사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현실의 결과였다.

예를 들어, 1950년도 함남도 함주군 선덕면은 가장 낙후돼 도 내 각 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14명의 유급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된 후로 일체 사업은 현저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시책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⁵⁹⁾ 이러한 성과들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북한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에게 더 많은 책무를 부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5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 결정서, 1952년 8월 3일)”, 90쪽.

5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328쪽.

북한은 1952년 12월 22일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기존 행정구역제도인 ‘도-시-군-면-리’를 ‘도-시-군-리-동’ 체제로 변경, ‘면’을 폐지하고 행정 말단 단위인 ‘동’을 신설, 군이 직접 행정 말단단위 ‘리’ 직접 지도·관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제도 개편을 실시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민주선전실의 구조와 운영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민주선전실장에게 당의 사상을 담당하는 ‘리당 부위원장’ 직을 겸임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⁶⁰⁾ 리당위원장도 상근제로 변경되었다.⁶¹⁾ 이어 1개 리를 담당하던 유급 민주선전실장들에게 2개 리의 민주선전실을 맡아서 사업하도록 지시하였다.⁶²⁾

또한 행정구역 말단 단위인 ‘동’에 민주선전실 분실이 설치되고 분실장이 임명되면서 민주선전실은 민주선전실장-민주선전실 부실장-민주선전실 분실 분실장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행정계통적으로 문화선전성 관할 하에 있는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을 중앙당의 직할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의미했으며, 리당부위원장인 민주선전실장은 농촌의 리, 동까지 당의 노선과 정책이 직접 하달되어 실행되는 시스템 구축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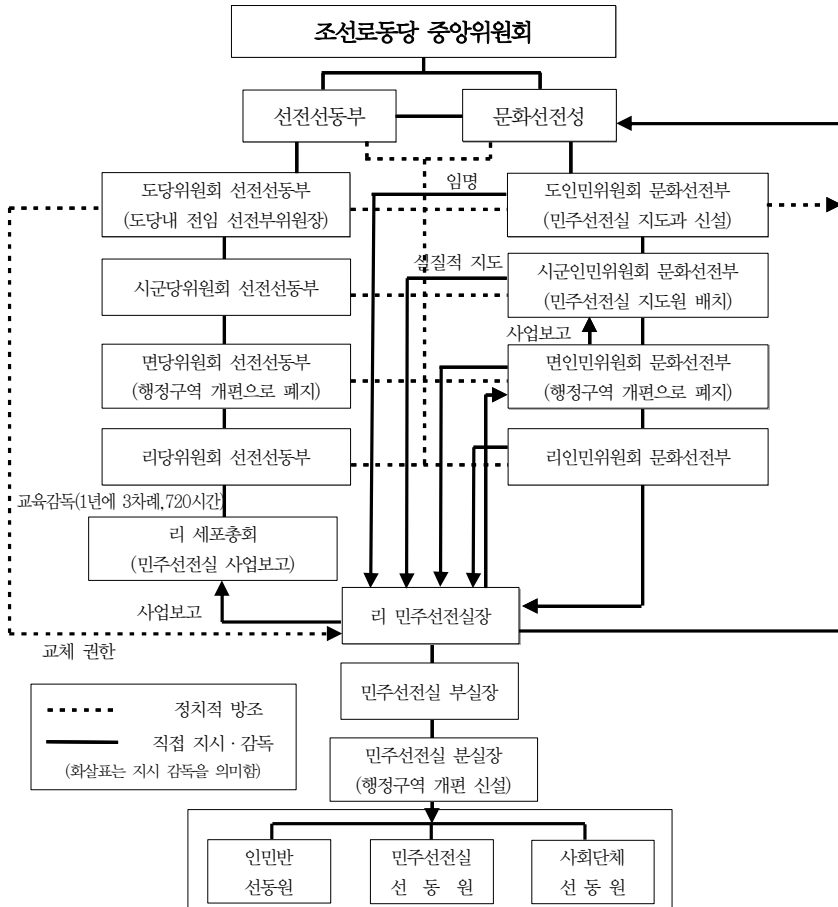
이러한 조치들은 민주선전실장에게 리, 동 단위에 당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요구했다. 1949년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와 1951년 8월 ‘농촌 리 민주선전실에 관한 내각 결정 제321호’에서는 민주선전실장에게 본연의 임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조치였다. 민주선전실장은 리당부위원장, 리당 위원, 리 인민위원회 위원, 노동당 학습강사, 조소문화협회 리위원장, 및 유적유물보존위원회 리 위원장도 맡아야

60)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61) 서동만, 앞의 책, 472쪽.

62)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 지도의 강화,” 『로동신문』, 1952년 11월 10일.

〈표 3-2〉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 운영구조 및 지도체계



출처: 김상범, 「한국전쟁기 조선로동당 정치조직사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30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1949.7-1951.12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28-329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도당위원회에 선전부위원장제 설치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24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6쪽;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을 종합해 저자가 직접 작성.

했다.⁶³⁾ 한국전쟁기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장은 당, 정부, 그리고 사회단체의 노선과 정책 모두에 관여 및 실행함으로써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음새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선전실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주선전실 내 인적 구성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 이전 시기에는 1개의 민주선전실에 당원, 비당원으로 구성된 5-7명의 선전선동원들이 배치되었다. 민주선전실 운영위원회가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선전선동원 책임자 1인이 존재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은 민주선전실장 1명, 선전선동원 최대 7명, 운영위원회 최대 8명 등 최대 총 16명 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전쟁 시기는 일반적으로 민주선전실장이 마을의 인민반 수, 선전대상, 마을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선전선동사업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산악지형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 간의 거리가 멀었고, 이 경우 민주선전실장의 지도 아래 더 많은 분실과 선동원들이 배치될 수도 있었다.⁶⁴⁾ 북한이 민주선전실 관련 당과 내각의 결정으로 선전선동사업에 더 많은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이전 시기보다 민주선전실 사업에 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예를 들어, 평남 강서군 학송리의 경우 1개의 민주선전실은 실장 1명, 부실장 1명, 분실장 3명 그리고 30명의 선전선동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⁶⁵⁾ 이것은 전쟁 이전 시기보다 민주선전실

63)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위의 책, 204쪽.

64)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65) “민주선전실 분실장의 사업 경험 - 평남도 강서군 학송리 민주선전실 소룡동 분실 분실장 박인에,” 『로동신문』, 1953년 4월 9일.

구성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북 안주군 평률리의 경우 민주선전실장 1명과 20여 명 정도의 선전선동원 등 최소 21명으로 구성되었다.⁶⁶⁾

중요한 것은 전쟁기 민주선전실을 구성하는 인원들은 모두 지역에서 신임을 얻고 있는 당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⁶⁷⁾ 다시 말해, 전쟁기 민주선전실을 구성하는 인원은 전쟁 이전시기 보다 2 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모두 당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당과 최고 지도자, 인민을 위한 일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의미했다.

민주선전실장의 막중한 책무와 비록 당원이지만 정치 및 실무 수준이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이 다 함께 전쟁수행을 위한 사업들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 계획들을 토대로 정기적인 사업 총화와 비판은 민주선전실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며 민주선전실장과 구성원, 그리고 사업 대상인 인민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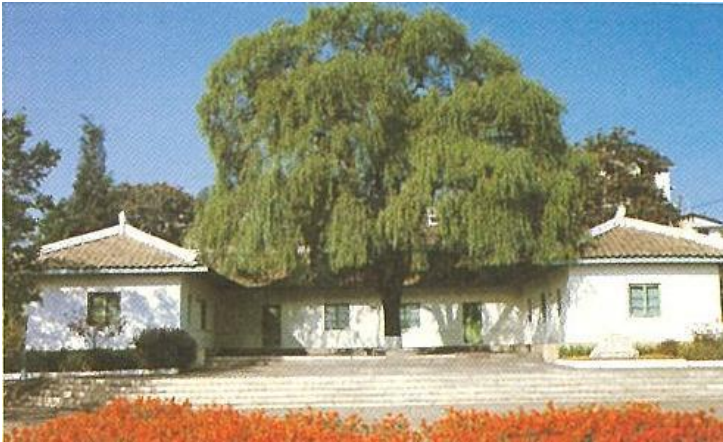
민주선전실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내외의 정치·경제 경제와 당과 국가로부터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낼 수 있는 관련 정보와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민주선전실장은 농촌 지역의 군중 정치문화사업이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초급당(세포)위원장 및 각 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 내 각 사회단체 책임자들과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 계획서에는 강연, 보고, 좌담회, 직관물 선전 사

66)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0-201쪽. 당시 민주선전실에는 1명의 부실장과 최소 1명 이상의 분실장이 존재했다. 아쉽게도 이 문헌에는 민주선전실 부실장과 분실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 연구자는 총 21명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부실장과 분실장까지 포함한다면 평률리 민주선전실 구성인원은 최소 23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평률리는 평률, 명학, 봉덕 등 세 개의 자연부락에 300호 남짓 되는 집들이 흩어져 1,200명 정도의 농민이 살고 있었다.

67) 위의 책, 201쪽.

업, 선전 자료 작성, 씨클 연습 및 공연, 전람회, 선동원들을 위한 세미나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집행 방법, 집행 기관 및 주체, 협업 구조 등이 포함되었다.⁶⁸⁾ 또한 이 계획서에는 계획 수립 후 집행에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은 계획의 수립,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해 월 1회 당과 인민위원회의 리급 간부들과 선동원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총화를 거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음 사업을 계획, 토의함으로써 ‘계획 완수’를 민주선전실 사업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사진 3-1〉 민주선전실의 외부 모습 - 평남 강서군 청산리 민주선전실



출처: “추억의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2000년 2월 8일;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지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서울: 웅진닷컴, 2004, 165쪽.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와 사업체계면에서의 변화는 민주선전실의 위치, 내외 장식 부분에서도 일어났다. 먼저 전쟁 이전

68)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시기 민주선전실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상 큰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전쟁기에는 전시를 고려하여 폭격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방공호 및 대피시설을 굴설할 수 있거나 굴설되어 있어 사람들이 모이기 유리한 곳 중 ‘리’ 내 가장 적합한 곳을 이용하였다.⁶⁹⁾ 민주선전실이 지상 건물일 경우 철저한 위장막은 필수장비였다.⁷⁰⁾

전쟁 이전과 전쟁기 양 시기를 통틀어 민주선전실의 내외부 장식은 그 자체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흥미 느낄 수 있는 설비와 장식이 필요했다. 선전선동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민주선전실 내에는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 강연회, 보고회, 각종 강습회 및 기타 집회를 할 수 있는 큰 방이 있었으며, 도서실, 오락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그 방에는 농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기판, 바둑판, 라디오, 악기, 축음기 등 여러 가지 문화오락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외부에는 농민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쉽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실지 농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벽보판, 표어, 당면과업 도표 등 직관물 선전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장식은 남북한은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민주선전실을 통해 명확히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에는 사회주의 모국으로서의 소련의 지위와 역할, 최고지도자로서의 존경을 담아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나란히 장식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이북지역을 다시 재 수복하게 되자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의 사진이 나란히 걸리게 되었으며,⁷¹⁾

69) “마을의 교실 - 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령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2년 1월 16일.

70) “과동 준비 활발 - 민주선전실장 최성룡 동무가 사업하는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2년 10월 21일.

질서 정연하고 존엄하게 내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⁷²⁾ 당시 북한 내 각 급 당위원회 사무실에도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는 걸리고 모택동의 초상화는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⁷³⁾을 볼 때 정치적으로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것은 중국의 전쟁지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북한은 민주선전실장에게 중국의 국공내전, 인민경제 복구건설의 성과, 국제적 지위 및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자료를 하달하고, 선전선동 자료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⁷⁴⁾ 이것은 정권 초기와 전쟁수행 중이라는 체제 위기의 상황에서 중국과 모택동의 역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모택동을 스탈린의 지위와 명성에 버금가는 인물로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전쟁 경험과 승리 방법을 소개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주민들에게 친 중국성향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초상화 이외에도 북한을 지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장과 국기들 또한 함께 장식되었다. 장식들은 소련, 중국, 북한을 하나의 단합체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을 바탕

71)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12일.

72)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73)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192쪽.

74) 문화선전성, 「강사, 민주선전실장, 선동원에게 주는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립출판사 인쇄공장, 1951년 6월)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53 중화인민공화국(강사, 민주선전실, 선동원에게 주는 자료), 문화선전성 1951.5. NARA, RG 242, SA 20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발행연도가 1951년 5월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문 뒤표지에는 1951년 6월로 표기되어 있다. 북한은 1만 부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동신문 기사에는 조썬반과 같은 조중반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으로 동요와 이탈을 방지하고 당과 인민의 결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선전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소련과 중국, 북한체제, 김일성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쟁 과정과 후 중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사진 3-2〉 민주선전실의 내부 모습 - 평북 안주군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출처: “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12일.

대내외 장식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민주선전실장이 조소문화협회 리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민주선전실 내 조소친선실이 설치 및 운영⁷⁵⁾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소반에서는 소련의 전쟁 승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소련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 특히 쿨호즈 농민들이 고난을 극복하며 전쟁 승리에 이바지한 경험을 집중 교육시키며 전쟁의 승리와 이를 위한 교육과 동원정책에 대한 정당

75) “마을의 교실 - 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령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2년 1월 16일.

성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당과 정부의 목표에 대한 공유와 함께 그것을 다 함께 어떻게 완수해 갈 것인가에 대한 소통의 과정이었다.

모택동의 사진 이외 전쟁 상황과 지역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전쟁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김일성의 교시, 각 지역 출신 전쟁영웅들, 부락 모범 농민들의 사진과 표창장, 각 지역농민들의 사업성적 표시판과 대비하여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농민들을 알리고 비판하는 게시판⁷⁶⁾도 등장했다. 이렇듯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대내외 장식은 농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선전선동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에 모여들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열정을 슬며시 내 비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의 선발과 교육 강화

1) 민주선전실장

민주선전실장의 임무는 농민들에게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 선전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 수행을 위해 교육과 동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견고한 후방없이 승리할 수 있는 군대는 없다”는 스탈린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서 강력한 후방으로서의 농촌지역은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한 무대였다. 그러나 우수한 사업성적을 내는 민주선전실도 있었지만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쟁 상황에서 민주선전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이론 및 실무수준이 높은 유능한 간부들을 민주선전실장으로 배치하는 것, 민주선전실 사업을 지도·

76) “농촌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질을 보장 - 평남 강동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2월 31일.

감독하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의 능력, 그리고 민주선전실장을 포함한 구성인원들의 정치 이론 및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 모두가 중요했다.⁷⁷⁾

민주선전실장은 당으로부터 배치 결정이 나면 먼저 지역 군당위원회 사무실 당원 등록과장에서 당 이동증을 제시하고 부임인사를 한 후, 리당위원장과 리인민위원장을 차례로 찾아가 자신이 실장으로 배치되었다고 인사를 했다.⁷⁸⁾ 이후 리인민위원회로부터에서 민주선전실 사업 관련 인수인계를 받고, 다시 리당위원장을 찾아가 사업 내용 및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⁷⁹⁾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간부들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은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대와 환경을 제공하였다. 민주선전실장 배치 후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해서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 간부들의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이 중요했다.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는 민주선전실장들에 대한 정치 및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간부들로 하여금 장, 단기 강습회, 정기적으로 매월 1-2회씩 진행되는 세미나와 경험교환회, 개별적 지도 등을 진행했다. 이들 강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주로 소련의 농촌 및 구락부들에서 선전선동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교육함으로써 강의가 진행되는 곳에 모범 사례들을 실제 모습들로 재현하여 소개하였다.⁸⁰⁾

세미나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이론 문제들과 현행 정치 시사 문제, 그리고 「민주선전실장들은 어떠한 사업을 해야하는가?」, 「분실장들

77)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경험,” 『로동신문』, 1953년 6월 4일.

78)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193-195쪽.

79) 위의 책, 196-197쪽.

80) “민주선전실은 농촌 정치 문화 생활의 중심 - 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의 실무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켰는가,” 『로동신문』, 1953년 7월 23일.

에 대한 지도 사업, 「문화 사업과 농촌 민주선전실」등 민주선전실 실무사업 방법상의 문제들이 집중 교육되었으며 우수 사례 및 경험들이 교환, 공유되었다.⁸¹⁾

이어 군당위원회는 리의 군중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검열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선전실장의 실무 강습을 지도했다.⁸²⁾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이러한 정치와 실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군당위원회 간부들은 1951년 12월 5일 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 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민주선전실에 「로동신문」, 「민주조선」, 「농민신문」, 각 도 일보 등을 위시한 각종 신문과 선동원들을 위한 「선동원수첩」, 문화씨클원들을 위한 「대중문예」 및 「인민가요」, 직관물 선전을 위한 각종 화보와 정치 포스터 또는 사진들 그리고 정치 문학 및 과학서적들을 배포, 지원했다.⁸³⁾ 또한 각 민주선전실에 1952년도에 1년 치 사용 용지와 등화용 카바이트 100톤을 배급하였다.⁸⁴⁾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장의 역량 제고와 민주선전실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강습회는 1952년 8월 3일 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에서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를 결정, 8-9월 말까지 각 민주선전실장 30일 강습회를 조직, 진행할 것을 지시한

81) 위의 신문, 1953년 7월 23일.

82)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경험,” 『로동신문』, 1953년 6월 4일.

83)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8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1949.7-1951.12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28-329쪽.

것에 따른 것이었다.⁸⁵⁾ 강습회는 각 도당 및 인민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횟수 및 시기는 변동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황해도, 평남도는 9월에, 평북도는 12월에 강습회를 진행했다.

당 선전선동부의 정치적 지도에 의하여 도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는 1년에 3차례의 민주선전실장 강습회를 실시하였다.⁸⁶⁾ 강습회는 민주선전실 사업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가 함께 체제 선전선동사업 전반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강습회는 단순 교육뿐만 아니라 수준미달의 민주선전실장의 교체 및 임명, 해당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졌다.

강습회 강사들은 정치이론 및 실무 수준이 높은 도당위원회 및 도인민위원회 책임간부들로 구성되었다. 강습회에 참가한 민주선전실장들은 1차례 실시에 한 달 동안 240시간씩, 총 3차례에 걸쳐 720시간을 교육받아야만 했다.⁸⁷⁾ 1952년 9월에 있는 황해도 제1회 리 민주선전실장 강습회에는 도 내 429명,⁸⁸⁾ 평북도 강습회에는 350명의 민주선전실장이 참가했다.⁸⁹⁾

강습회에서는 ‘해방 후 조선인민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김일성의 연설문, 국내외 주요 이슈들, 법령, 내각 결정 및 지시 등 당과 정부의 주요 노선과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심화학습이 이뤄졌다.⁹⁰⁾ 강습회에 참가한 민주선전실장들을 자체적

8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 결정서, 1952년 8월 3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91쪽.

86) “민주선전실장 강습의 질을 일층 높이라! - 황해도 농촌 민주선전실장 1개월 강습 정형, 『로동신문』, 1952년 10월 28일.

87) “평북도에서 민주선전실장 강습회,” 『로동신문』, 1952년 12월 7일.

88) “민주선전실장 강습의 질을 일층 높이라! - 황해도 농촌 민주선전실장 1개월 강습 정형, 『로동신문』, 1952년 10월 28일.

89) “민주선전실장 강습회 - 평남도에서, 황해도에서,” 『로동신문』, 1952년 9월 25일.

90) 위의 신문, 1952년 9월 25일.

으로 ‘학생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규율 있는 생활을 하는 한편, 우수한 민주선전실의 사업 경험들을 토론, 교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향상시켰다.⁹¹⁾

또한 강습회에서는 민주선전실에 운영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도당 선전선동부 및 도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의 책임간부들이 지역 민주선전실 사업을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앙 당의 직접 감사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강습회에서는 민주선전실장뿐만 아니라 도당, 도인민위원회 간부들까지 강습회 준비와 교육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했으며, 이들 간부들이 담당 지역 민주선전실 사업 현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었다.

강습회 기간 내 민주선전실 운영에 대한 감사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예를 들어, 황해도 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 일군들은 무능한 실장을 교체하며 결원을 보충하는 데 대한 사업 계획만 수립한 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⁹²⁾ 당에서 강습회 강사들을 정치, 실무적으로 수준이 높은 도당위원회 혹은 도 인민위원회 부장급 인사들로 구성할 것을 지시했지만 과장급으로 구성한 점, 강습 장소, 숙소, 식당 등 강습회 진행을 위한 준비에 소홀한 점, 유급 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2개의 민주선전실 사업을 담당케 했지만 단순한 숫자적 통합으로 인식해 4개의 민주선전실 사업의 위임케 한 점⁹³⁾ 등이 지적되었다.

민주선전실의 이러한 사업행태에 대해서 도당 및 도인민위원회 책임간부들은 중앙 당으로부터 강력한 질책과 비판을 받고 시정을 요구받았다.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이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당과 정부의 정책 관철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91) “평북도에서 민주선전실장 강습회,” 『로동신문』, 1952년 12월 7일.

92) “민주선전실장 강습의 질을 일층 높이라! - 황해도 농촌 민주선전실장 1개월 강습 정형,” 『로동신문』, 1952년 10월 28일.

93)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 지도의 강화,” 『로동신문』, 1952년 11월 10일.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민주선전실 사업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지만, 당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인해 개선·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농촌 사회에 녹아들어 인민들과 어떻게 사업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몰두’를 하게 만들었다.

2) 부, 분실장과 선동원들

민주선전실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선전실장뿐만 아니라 부실장, 분실장, 선동원 등 구성인원들의 정치 이론 및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도 중요했다. 민주선전실 내 부실장, 선동원, 그리고 인민반 선동원에 대한 선발과 교육은 민주선전실장이 담당했으며, 사업 성과의 제고를 위해 이들의 정치교육 및 당적 지도는 지역 당 위원회에서 담당했다.

농촌지역 정치사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민주선전실장은 무엇보다도 농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 중 능력있는 선동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했다.⁹⁴⁾ 민주선전실장은 지역 인민들의 정치의식, 문화수준, 그리고 군무자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들의 생활 감정을 잘 이해하고 교양할 수 있는 열성 당원들을 중에서 부실장, 선동원, 인민반 선동원, 노력반 선동원, 벽보사업 등 각종 사업 담당자로 선발·배치하였다.⁹⁵⁾ 그러나 주로 열성 당원들 중 정치지식수준이 비교적 높고 우수한 인원을 민주선전실 선동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각 인민반 선동원으로 배치하였다.⁹⁶⁾

94)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화, 앞의 책, 197쪽.

95)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 - 선동원의 선발배치와 그 수준제고를 위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17일.

96) “농촌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질을 보장 - 평남 강동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2월 31일.

선동원들의 성비와 나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랐다. 평북 박천군 송산리의 경우 선동원들은 19-35세 사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⁹⁷⁾ 평남 안주군 평률리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대거 남성의 입대에도 불구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으며, 대개 30-40대 장년들로 이뤄졌다. 문화적인 이유로 나이 어린 청년들의 교육을 내이든 농민들이 잘 받아들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한 배치가 이뤄졌다.⁹⁸⁾ 전쟁 상황과 농촌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식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민주선전실장은 부실장, 분실장 및 선동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매월 계획성 있고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주선전실장은 수립한 계획에 의거, 부실장, 분실장 그리고 선동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들에게 국내외 정치 정세와 전선 소식 및 정치 문제들과 부여된 과업들을 해석 주면서 사업을 지도했다. 세미나는 주로 「쏘련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 등 이들의 정치 이론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⁹⁹⁾

민주선전실장은 선동원과 함께 민주선전실과 인민반 좌담회 등을 직접 주최하였으며, 선동원은 세미나와 좌담회에서의 교육 내용과 선전 자료를 통해 인민반 또는 품앗이, 소결이반 등 노력반에 직접 들어가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¹⁰⁰⁾ 모든 품앗이반 별로 배치된 선동원은 민주선전실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매일 독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민주선전실장은 모든 선동원들로

97)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 - 선동원의 선발배치와 그 수준제고를 위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17일.

98) 김진계 구술·기록, 김웅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0-201쪽.

99)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2년 8월 12일.

100)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하여금 선동원수첩에 선전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게 하였으며, 정치 및 실무 수준이 낮은 선동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좌담회에서의 교육 방법 등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¹⁰¹⁾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민주선전실 선동원들은 사업 관련해 각 사회단체들의 선동원들과 연계하면서 노인, 여성, 청년 등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했다.

민주선전실장은 「민주선전실 규정 및 선동원들의 사업에 대하여」, 「자습회전형 방법에 대하여」, 「타지방 민주선전실 선동원들의 경험전습」 등과 매일 신문에 게재되는 중요한 정치시사 문제와 재미있는 기사들을 골라 자체적으로 교양 및 강습 자료를 제작해 선동원들을 교육시켰다.¹⁰²⁾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의 사업성과를 제고시키는 노력은 지역 군당위원회 당회의와 당원협의회, 인민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선동원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뤄졌다. 당 회의에서는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및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검토하며 수시로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설득과 비판을 통해 그들의 책임성을 높여갔다. 또한 민주선전실에서는 격식없는 당원협의회도 열렸다.¹⁰³⁾ 당세포위원장,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민주선전실장은 민청, 녀맹, 농맹, 조쏘문화협회 등 사회단체 책임자들과 3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이들로 하여금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¹⁰⁴⁾

101) “농촌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질을 보장 - 평남 강동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2월 31일.

102) 위의 신문, 1951년 12월 31일.

103) 「준엄한 나날의 락원사람들 - 잊을 수 없는 당세포 총회」,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 조국해방전쟁 시기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77, 51-52쪽.

104) “마을의 교실 - 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평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2년 1월 16일.

리 민주선전실장, 리 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등 약 30명이 참가하는 선동원 세미나는 월 4회 개최되었으며,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⁰⁵⁾ 민주선전실장이 직접 교육에 참가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선동원들을 재교육시켰다.

지역 선동원들은 바로 지역 농민들의 가족, 친지, 동료였다. 그들은 생활, 사고와 감정을 공유하며 민주선전실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전쟁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은 당과 인민위원회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 민주선전실장과 부실장, 분실장 및 선동원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민주선전실 사업의 성과를 높이며 전쟁기 농민들을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위한 일심단결된 투사로 만들기 시작했다.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문제점

1) 간부 부족 현상 : 간부의 낮은 질적 수준과 농촌 문화 몰이해

민주선전실 사업은 전쟁기 간부양성 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성과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전쟁기 민주선전실장의 수준은 당과 정치학교를 졸업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이었다. 정치이론적 및 실무 수준이 낮은 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된 경우 간판만 내걸었을 뿐 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¹⁰⁶⁾ 예를 들어, 함남도에서는 1953년 2월 말 현재 742명의 민주

105)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1-202쪽.

106)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 - 평남도당부 선전선동

선전실장이 배치되었는데 그 중 정치학교 졸업자는 192명(26%) 뿐이었다. 행정구역 개편 전 함남도 전체 민주선전실장 중 정치학교 졸업자가 29%였던 것에 비하여 3% 비율이 적었던 26%를 차지했던 강원도 금강군이 경우 배치된 민주선전실장 중 45% 이상은 겨우 국문이나 해독하는 수준이었다.¹⁰⁷⁾

설상가상으로 간부 부족으로 인해 민주선전실장을 배치함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문건만 가지고 사업하였기 때문에 이에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과 또는 타 지역에 배치된 민주선전실장을 중복으로 타 지역에 배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¹⁰⁸⁾

이러한 현상은 새로 배치된 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선전선동사업에 무관심한 경향을 낳게 만들었다.¹⁰⁹⁾ 정오가까이 되어서 출근하고 김일성의 교시 및 내각 결정은 고사하고 농민들의 생활상에도 무관심한 경우도 있었다.¹¹⁰⁾ 민주선전실장은 농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부속 설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선전실을 설치만 해놓고 농촌 인민들 속에서 강연회, 보고회, 죄담회 등을 수개월 동안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숙박소로 이용되는 현상까지 있었다.¹¹¹⁾ 또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일부 무책임한 민주선전실장들은 이전 실장들이 사업

부장 리창협, 『로동신문』, 1951년 9월 18일.

107)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08) 위의 신문, 1953년 4월 16일.

109) “민주선전실은 농촌 정치 문화 생활의 중심 - 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의 실무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켰는가,” 『로동신문』, 1953년 7월 23일.

110) “민주선전실 사업에 있어서 실장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1952년 8월 29일.

111)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을 잘 못하였다는 비판만 하였으며, 폭격으로 인해 민주선전실이 파괴된 경우 농민들이 제때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어물어물 시일만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실장이 새로 부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민주선전실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선동원들조차 선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¹¹²⁾

민주선전실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임무는 정치, 선전선동과 경제의 결합을 바탕으로 전쟁을 위한 생산과 동원에 적극적으로 인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 이론과 실무 수준이 낮은 선전실장은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일방적으로 ‘정치’만을 강조하며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춘기 파종 시기는 일년 농사 기간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파종에 하루 종일 힘을 쏟아야 농민들을 빈번히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민주선전실에 전부 모아 놓고 선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춘경 파종 사업에 도리어 지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파종 시기에 있어서는 소걸이반, 품앗이반 등 농민들이 일하는 곳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선전선동활동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받은 교육을 기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¹¹³⁾

농촌 지역이라는 무대의 특징으로 인해 민주선전실장에게는 농민들의 사고방식, 삶,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평양 등 대도시 출신으로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농민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려는 자세는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면밀히 파악한 기초 위에 선전선동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민주선전실장에게는 필수

112) “농촌 균중정치사업을 강화하라 - 민주선전실 사업지도에 등한한 일꾼들,” 『로동신문』, 1953년 4월 17일.

113) “춘기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2년 4월 17일.

중의 필수 덕목이었으며 중요한 자질 요건이었다. 다시 말해, 농민들로 하여금 외지인이 아니라 현지인이라는 평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촌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이러한 개방적 마인드의 부족은 민주선전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농민들이 민주선전실에 오기를 꺼리는 현상을 유발시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없이는 어떠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농업기술이라도 교육적 가치가 없었다. 민주선전실에 모여든 농민들에게 과도한 정숙을 요구해 농민들로 하여금 “서당에 간 것 같다, 꼭 훈장 앞으로 가는 학생 같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도 있었다.¹¹⁴⁾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본질적이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민주선전실장에게 남아 있는 결함, 즉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선전선동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었다. 농민들의 감정과 생활에 맞지 않는 선전선동은 농민들을 북한체제에서 이탈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기 정치 이론 및 실무적으로 수준이 높고 연륜이 있는 당원들은 전선으로 파견되었던 이유로 새로 부임한 민주선전실장은 대부분 도시에서 온 젊은 엘리트 층각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촌 지역에 남아 있던 인구의 대부분은 노인들과 여성들이었다.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 악화는 민주선전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엘리트 출신의 민주선전실장에게 딸을 가진 부모들은 그들을 사윗감으로 점찍어 딸과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¹¹⁵⁾도 발생하는 등 실장과 마을 처녀들 사이의 남녀관계 또한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14) “민주선전실 사업경험 - 평남도 안주군 룡서리 민주선전실장 리순태,” 『로동신문』, 1952년 9월 27일.

115)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3쪽.

2) 지역 당 및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과 행정대행 현상

농촌 리 민주선전실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지방 당에 소속된 당 세포, 분 세포, 세포 총회, 세포위원회와 리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 등 해당 농촌 당 및 단체, 그리고 인민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일부 지방 당 단체에서는 민주선전실장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부이며, 민주선전실 사업은 군에서 직접 지도한다 하여 민주선전실이 부임해 온 후 거의 1년 동안이나 그 사업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감독 및 협조도 하지 않으며 사업에 무관심했다.¹¹⁶⁾ 일부 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 직원들조차 당 단체와 더불어 민주선전실장 사업에 구체적인 관리·감독은 하지 않았다.¹¹⁷⁾ 심지어는 황해도 재령군 서림리 당 위원장은 자신이 선전선동 해설 사업과 선동원 세미나를 위해 민주선전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민주선전실 사업에 리당 위원장의 이름을 박을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¹¹⁸⁾

민주선전실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료주의적 행태로 생긴 현상이었다. 그 결과 민주선전실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민주선전실장은 마치 리 세포 등 당 관련 조직의 협조는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며, 인민위원회 관련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며 대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¹⁹⁾

당과 정부의 간부들뿐만 아니라 민주선전실장 본인들조차도 민주

116) “민주선전실 사업에 등한한 일꾼들 - 순안군 룡궁리 당 조직위원회 사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결함,” 『로동신문』, 1953년 2월 18일.

117) “당적 협조를 강화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 황주군 미산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1년 11월 13일.

118)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19) “당적 협조를 강화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 황주군 미산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1년 11월 13일.

선전실 사업에 대한 인식의 혼돈으로 당과 정부의 행정사업을 맡아서 하는 행정대행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방 각급 당 단체들에서는 관리·감독의 이름하에 당 관련 리 사업에 민주선전실을 빈번하게 동원시켰다. 예를 들어, 평남도 룡강군과 안주군의 경우 당 등록사업이 바쁘다하여 군내 전체 민주선전실장에게 당 등록에 관한 교육을 시킨 후 리 초급당 위원회 통계원 격으로 보고서, 회의록 작성, 통계 정리 등을 하도록 파견조치 하였다. 이들은 거의 한 달 넘게 민주선전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리 당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작성 및 정리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¹²⁰⁾

3)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관료주의 현상 심화

전술하였듯이 북한은 전쟁 말기인 1952년 12월 22일 전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민주선전실 구조와 운영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겼다. 첫째, 민주선전실장에게 당의 사상을 담당하는 ‘리당 부위원장’직을 겸임, 둘째, 1개의 리를 담당하던 유급 민주선전실장에게 2개 리의 민주선전실을 맡아서 사업하도록 지시, 셋째, 행정구역 말단 단위인 ‘동’에 민주선전실 분실이 설치된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장에게 리당 부위원장을 겸하게 하는 조치는 농촌 리에서 당의 정치사상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¹²¹⁾ 다시 말해 이 조치는 전쟁 말기에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 정치사상 사업이 리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과 리당 위원회가 민주선전실 사업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다뤄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20)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21) “고풍군 내 일부 민주선전실장들의 무책임성,”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북한 지도부가 의도했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명의 민주선전실장은 2개 리의 민주선전실장과 2개 리의 부위원장을 겸직하며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면’의 폐지로 인해 일부 ‘리’의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민주선전실의 수도 확장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민주선전실장의 부족으로 인해 인근 모범 민주선전실이 통폐합되면서 폐쇄되거나 사업이 중지된 곳도 있었다.¹²²⁾

민주선전실장의 과도한 업무 분담과 높아진 정치적 위상은 민주선전실과 리당 위원회 업무 중 하나에만 집중해 민주선전실과 리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를 저해하기도 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를 임시방편적으로 사업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만들었다.

민주선전실장의 리당 부위원장 겸직 조치는 민주선전실보다 리당 위원회 사업에 몰두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리당 부위원장은 엄연히 당 관료였기 때문에 민주선전실장보다 리당 부위원장으로 행세하길 더 좋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리당 부위원장이라고 부르면 좋아하고 민주선전실장이라고 하면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¹²³⁾ 심지어는 민주선전실장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상하여 낮 색까지 변하며 못 본척하고 지나가기도 하였다.¹²⁴⁾

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은 리당부위원장직 겸임이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위신만 세우려하면서 농민들과 선동원들에게 ‘명령’과 ‘지시’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대중정치사업을 하며 사실상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¹²⁵⁾ 심지어는 자신이 일할 좋은 사무실만 찾아다니고 사업을 등

122)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123)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24)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한시 하며 민주선전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농민들의 낮은 정치, 사회적 의식 수준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¹²⁶⁾

과도한 업무로 인해 민주선전실과 리당 위원회 일 중 하나에만 집중하며 절름발이 사업을 하는 현상도 적지 않았다. 부임한 지 한 달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역 농민들의 생활 형편과 정치의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호별 방문 및 좌담회, 강연회, 영농사업 등 본격적인 사업을 한반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리당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통지’, ‘리당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몰두하여 민주선전실장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히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¹²⁷⁾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역 농촌 주민들은 민주선전실장이라고 하면 이미 전출나간 이로 착각하고 신입 민주선전실장은 리당 부위원장으로만 알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¹²⁸⁾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장과 리당 부위원장을 별개의 직책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주민들이 당과 정부의 시책 및 현 정세에 대해서 점점 무지해 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농민들이 당과 정부로부터 서서히 이탈하는 현상 이것은 전쟁기 김일성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었다. 북한은 전쟁기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정치 선전선동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과 국가 앞에 엄연한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리당 부위원장을 겸하게 된 민주선전실장은 자신이 당 관료라는 이유로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의 지도원들의 지도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이들이 소집하는 민주선전실장 세

125) “민주선전실장의 사업 경험 - 로인들 속에서의 사업,” 『로동신문』, 1953년 1월 14일.

126) “고풍군 내 일부 민주선전실장들의 무책임성,”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127) 위의 신문, 1953년 4월 1일.

128)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미나도 불참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선전실장은 이들이 서류와 통계사업을 지도한 것에 대해 “당 부위원장이 당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며 “이제는 인민위원회와 좀 싸움을 해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하였다. 다시 말해 리당 부위원장 직책을 가진 민주선전실장이 자신의 사업을 관리·감독하던 인민위원회 지도원들과 급과 지위를 놓고 파워게임을 진행한 것이었다.¹²⁹⁾ 민주선전실장의 리당 부위원장 겸임 사태는 오히려 당과 인민위원회의 협력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행정구역의 말단 단위인 ‘동’에 민주선전실 분실이 신설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의 리당 부위원장 겸임과 지역 실정에 따라 분실 설치의 및 분실장 임명 등의 민주선전실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고도의 정치 선전선동사업이라는 민주선전실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분실장의 선발 및 배치는 민주선전실장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실장 배치를 일률적으로 리 세포부위원장을 배치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¹³⁰⁾ 또한 리당 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민주선전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분실장에게 민주선전실 사업 전체를 위임케 하고 리당 사무실에서 지시하고 독촉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¹³¹⁾

지역 사정에 따라 분실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분실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방치된 분실은 선전선동 원래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었다. 지역 학교가 방치된 분실을 사무실로 쓰기도 하면서 분실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였다.¹³²⁾ 민주선전실이 없어지자 인민들은 전선

129)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30) “동기간의 농촌 정치 군중 문화 사업,” 『로동신문』, 1952년 12월 7일.

131)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132) “민주선전실 분실장의 사업 경험-평남도 강서군 학송리 민주선전실 소룡동 분실 분실장 박인에,” 『로동신문』, 1953년 4월 9일. 이 기사를 통해 민주선전실장뿐만

소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선동원들 활동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나. 해결 방안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선전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당과 정부의 민주선전실 사업 관련 강습회와 세미나 등 지속적인 교육, 둘째, 중앙당 조직위의 민주선전실 관련 지시와 명령, 셋째, 정치의식과 비판능력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의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그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제도와 의식의 융합으로 인해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며, 김일성이 언급하였듯이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인민들 속에 해석, 전달하는 대중정치사업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해 나갔다.¹³³⁾

첫째, 당과 정부는 민주선전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당, 도당 선전선동부에서 주관하는 민주선전실장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장의 실무 수준 제고 및 선전실 사업 방법 및 방향, 더 나아가 감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주선전실장 교체 및 임명 등 민주선전실 사업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각 도, 시, 군에서는 개별 단위별로 민주선전실장 세미나, 경험 교환회 등을 통하여 우수한 민주선전실장 사업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였다.¹³⁴⁾

둘째, 민주선전실은 전쟁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부대 이동시 체류하는 곳 혹은 부대시설로 이용되

아니라 분실장도 여성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능력있는 여성들의 민주선전실장 및 분실장 임명은 김일성의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133)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경험,” 『로동신문』, 1953년 6월 4일.

134)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과 사업 강화를 위한 강습회와 세미나 등 교육 관련 부분은 본 논문19-24쪽 참고.

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선전실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는 민주선전실이 자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해당 기관책임자들에게 해당 지방 당단체 및 인민정권 기관들에서 민주선전실을 타목적에 사용하지 말며 이미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체 장비를 포함해서 민주선전실로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당 조직위원회는 제79차 결정서‘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를 채택하여 군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선전실을 일체 비품과 함께 1951년 12월 중에 반환할 것을 인민군 정치총국 부국장 김일에게 지시하였다.¹³⁵⁾ 그리고 초급당 단체들에서 이와 같이 타 기관에서 민주선전실을 사용하는 일이 없고 지방 당 및 인민위원회에서 민주선전실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 중앙위 차원에서 직접 경고하기도 하였다.

셋째, 김일성의 연설, 능력 있는 민주선전실장들의 선전선동사업의 영향으로 농촌 주민들은 자기 마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선전실의 정치문화 교육, 계몽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은 정치적 의식이 높아졌다. 높아진 정치의식은 민주선전실과 선전실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당과 정부의 기관의 사업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더 나아가 민주선전실장과 상급 기관인 당과 정부의 기관의 잘못된 사업 행태와 간부의 부패정치 부분까지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민주선전실장뿐만 아니라 지방 당과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사업 행태까지 비판하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요구에 대해 깨닫기 시작함으로써 자체의 견제와 비판으로 민주선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

1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329쪽.

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농민은 “김장군(김일성)께서는 그와 같이 생각하고 제시하시는데 우리 부락에서는 왜 일들을 그렇게 잘 못합니까? 그리고 실장 동무는 왜 우리들에게만 그러한 말만 하고 리위원장이나 기타 우리 부락의 간부들에게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¹³⁶⁾

인민들은 자기 부락 간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며, 언행불일치의 옳지 못한 사업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실장과 간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육류 수매 대금을 불법적으로 초과 징수하여 개인 생활비로 착복한다던가 혹은 기타 국가 재산을 사복을 채우는 행위, 그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신경질적이고 농민들을 위협 공갈하려고 하는 태도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¹³⁷⁾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이러한 부락 간부들에 대한 불만을 농민들은 김일성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강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민주선전실장과 부락 간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부락간부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덮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농민들과 민주선전실장에게 고압적이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선전실장과 농민들은 부락 간부들의 이러한 사업 태도에 대해 상급 기관인 군 당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고위 간부들에게 진소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수차례 진행된 군중집회를 통해 이들의 범죄적 행위들이 공개 비판되었으며, 이들은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되었다.

136)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한다-구체적이며 진공적인 군중정치사업 전개(중화군 각급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3일.

137) 위의 신문, 1952년 12월 13일.

농민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관철되고 보호해주는 당과 정부 특히 최고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으며 김일성이 교시한 전시과업의 수행과 증산을 위한 동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¹³⁸⁾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전쟁기 선전선동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정치의식 제고와 충성심 강화는 체제의 역동성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나타났던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당과 정부의 기관으로 인민대중들이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의 전쟁에 대한 승리와 이를 위한 생산과 동원으로서의 호소는 인민들에게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도 제공하였던 것이다. 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선동은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권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미약한 국민들에게는 선전선동의 전달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¹³⁹⁾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강력하되,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정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와 활동은 전후 복구과정에서 생산과 동원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도 활용되었다.

5. 맺음말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와 지도체계의 변화는 국가 선전선동 시스템

138) 위의 신문, 1952년 12월 13일.

139) 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Ibid*, p.33.

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기 체제 붕괴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 돌아온 김일성은 국가 선전선동망을 개편하여 당원과 인민들의 낮은 정치 및 문화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승리에 대한 의구심과 체제 몰락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당과 인민이 함께 현실적 과제와 해결책을 공동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당과 국가 그리고 최고지도자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선전선동 시스템을 통해 선전선동을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선전선동은 정책적 배려와 보호, 지식과 정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농촌지역 주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그것이 가지는 정치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체제 붕괴 위기까지 몰렸던 북한 지도부와의 연대를 자연스럽게 재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조직과 선전선동을 통해 운영된다. 중앙집권화된 선전선동 시스템은 현재의 북한에도 유효하다. 기존 북한학계에서는 정치적, 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조직의 운영과 변화를 통해 체제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주목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선동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통해 북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 문화 분야라는 이유,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선전선동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 선전선동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인데서 기인하는 연구의 피로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존 연구자들은 선전선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오지 않고 있다.

조직과 선전선동이 사회주의 체제운영원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북한학계는 ‘조직’이라는 외눈박이 안경만을 가지고 북한을 봐오고 있지는 않는가? 북한 선전선동의 조직 및 역사에 대한 이해, 특히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과 방법, 북한 지도부의 정책과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선전선동은 그냥 인민들을 향한 북한체제의 메아리일 뿐이며 여전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로 남아있을 것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전선동은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연구할 때 단순히 구호나 액션이 아니라 선전선동이 어떤 운영구조와 사업체계를 통해 인민들 속에 들어가고, 인민들은 선전선동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선전선동을 통한 북한체제 운영 연구의 기초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원고투고일: 2016.9.7, 심사수정일: 2016.11.17, 게재확정일: 2017.1.13.]

주제어 : 민주선전실, 민주선전실장, 선동원, 선전선동, 한국전쟁, 김일성, 조선로동당, 운영 구조, 사업체계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s Propaganda Office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Operations and the System for Business -

Kim, Sang-Bum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ow propaganda was used to prevent the D.P.R.K.(North Korea) from collapsing the regime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Structure of Operations and the System for Business.

People's liberation army of China played a key role in recovering and reestablishing North Korea. The North announced a new policy to rebuild and reestablish propaganda systems focusing on propaganda offices as top priority.

There are some important differences. When it came to operational structure, North Korea introduced paid-propaganda officers and sent them to the rural areas, which meant that North Korea consolidated and centrally managed all propaganda officers. When it came to working system, party memberships were required to become any member of propaganda offices. In addition to that, each provincial party committee and people's committee were forced to be responsible to educate and select directors of propaganda offices.

Through these efforts, North Korea enabled local citizens to support the Kim Il-sung regime and to unite and fight for North Korea and Kim Il-sung.

Key words : Propaganda Office, Director of Propaganda Office, Propagandists, Propaganda, The Korean War, Kim Il-sung, The Worker's Party of Korea, Operational Structure, Guide System

